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수능 당일 아침

– 수능 당일 예열 지문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봅시다.

독서는 화제 위주로, 같은 말은 최대한 끌어오면서 유기적으로.

문학은 선지에 시비 걸지 말고, '내면세계' 중심으로 독해한다는 태도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성 평가.

선택과목은 충분한 시간을 쓸 각오하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읽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독서/문학 조금씩만 풀어봅시다. 머리를 깨웁시다.

혹시나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수능 아닙니다.

틀렸으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이새끼 또 오타냈네."

부담 없이, 머리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 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져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올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폭압이며 불필요하다. 베카리아는 말한다.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용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로,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학에서도 형벌로 되갚아 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10.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②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다.
③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④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⑤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법률로 엮어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범죄가 유발하는 손실에 따라 높낮이를 정해야 한다.
④ 손익을 저울질하는 인간의 이성을 목적 달성에 활용한다.
⑤ 지키려는 공익보다 높게 설정할수록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②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의 입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④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 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⑤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1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향유(享有)하기로
② ⓑ: 단절(斷絶)하는
③ ⓒ: 둔감(鈍感)해져
④ ⓓ: 지대(至大)한
⑤ ⓔ: 수립(樹立)하였다는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방출되거나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쳐 튕겨 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책이나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할 때에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교란을 줄여 나갔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양이다.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에 교란을 적게 일으키면서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한다.

이상적 상황에서 전자를 '보기' 위해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한다고 해 보자.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전자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한다.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곧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의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지게 된다.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과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4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다.
③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④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은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쏘는 것이다.
⑤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48. 윗글에서 ㉡과 구별되는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② 대상을 매개물 없이 직접 지각할 수 있다.
③ 대상이 너무 작아 감지하기가 불가능하다.
④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⑤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4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일정한 전압에 의해 가속된 전자 빔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전자 빔에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은 ⓐ <u>1.87×10^{-24}kg·m/s</u>였다. 그 측정 오차 범위는 ⓑ <u>9.35×10^{-27}kg·m/s</u>보다 줄일 수 없었는데,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계산해 보니 이때 전자의 x축 방향의 위치는 ⓒ <u>5.64×10^{-9}m</u>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①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이겠군.
② 전자의 질량을 알면 ⓐ로부터 전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겠군.
③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보다 커질 수 있겠군.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 범위는 ⓑ보다 커지겠군.
⑤ 더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전자 위치의 측정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있겠군.

50. ㉮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u>없는</u> 것은?

① 단위를 10개로 <u>잘을</u> 때 200개는 20단위이다.
② 수확량을 <u>대중해</u> 보니 작년보다 많겠다.
③ 바지 길이를 대충 <u>재어</u> 보고 샀다.
④ 운동장의 넓이를 <u>가늠할</u> 수 없다.
⑤ 건물의 높이를 <u>어림하여</u> 보았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낡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뭐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숭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숭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숭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숭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숭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툰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흰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B]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조숭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쪽, 눈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숭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숭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②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③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④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⑤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이군.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서연의 예술관이 조숭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숭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1)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그믐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닌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 표범.
* 우라지오 :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 귀성스럽다 :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2)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슥히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뭇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짝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오장환, 「성탄제」 -

(3)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썽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엎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언젠가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뫼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김광섭, 「산」 -

(4)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 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婚禮),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 한데,
텃새만 남아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5)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정답

[10~13]
3542

[47~50]
5151

[27~32]
221243

(1)

삽살개 짓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그믐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삽살개 짓는 소리'가 들리고,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그믐'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밤'이 얄궂은 손을 곱게 흔들어 화자를 불렀다고 해요. 정말 '밤'이 화자를 불렀을 리는 없고, 화자가 '이 부두'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느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어쨌든 화자는 술을 마시고, '불타는 소원'을 가진 채로 '이 부두'에 온 상태입니다. '불타는 소원'과 같은 표현을 보면, '이 부두'라는 공간은 화자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 아롱범 : 표범.

화자가 '걸어온 길가'에는 '찔레'와 같은 꽃 한 송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화자의 '아롱범'은 자신이 걸어온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릅니다. '나의 아롱범'이라는 표현으로부터 화자가 자신을 '아롱범'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뉘우치지 않는(=후회하지 않는) '아롱범'은 곧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삶에 후회는 없는 것입니다. 어깨에 쌓인 '하얀 눈'과 같은 삶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 않다고 느낄 만큼 말이에요.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닌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 우라지오 :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이 부두'에서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이번엔 특정한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누이'와 함께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던 과거의 어떤 밤, '어머니'는 서투른 러시아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누이'가 잠들고 '등불'이 저절로 눈감을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말이에요.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 귀성스럽다 :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다.

그때, 다시 화자에게 '어머니의 입김'이 헤여듭니다. '헤여들다'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맥락상 화자 자신에게 맴돈다는 느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로 '어머니의 입김'이 갑자기 맴도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추운 겨울밤 부두의 안개를 '어머니'를 회상하던 시점에 인식하면서 '어머니의 입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어머니의 입김'은 '무지개'처럼 어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기억이 좋은 것이겠죠?

화자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기 때문에, 즉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어린 기억의 새'는 '귀성스럽'습니다. '귀성스럽다'는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하던 화자의 과거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담고 있는 '어린 기억의 새'에게 거사리지 말고(역시 없는 말입니다. '거슬리게 하지 말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화자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의미겠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고 합니다. '어린 기억의 새'가 날개를 털면 그 안에 있는 어린 시절 추억들이 떨어지겠죠? 이를 화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은줄'로 받아 그 추억에 잠겨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부두'에서 이런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점과 제목을 참고하면, '이 부두'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우라지오'와 가깝다는 점에서 화자로 하여금 '불타는 소원'을 가지게끔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우라지오'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불탄다고 표현할 정도로 간절한 것이죠.

>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 부두에 호젓 선 나는 멧비둘기 아니건만
> 날고 싶어 날고 싶어
>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하지만 지금은 '드나드는 배 하나 없'습니다. 화자는 '멧비둘기'는 아니지만, '멧비둘기'처럼 날아서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즉 '우라지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험한 길인 데다가 드나드는 배도 없으니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 등대와 나와
>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등대'는 화자와 함께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깁니다. '우라지오'를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는 항구에 가만히 서 있는 '등대'와 유사하겠죠? 화자와 '등대'는 서로 속삭이며 생각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생각에 잠기고, '밤'은 '우라지오'에 가고 싶다는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입니다. 하지만 '가도오도 못할' 처지인 화자에게 '밤'의 꾀임은 슬픔을 증폭시킬 뿐이에요. 마지막까지 화자의 서글픈 내면세계가 느껴지셨다면 잘 읽으신 겁니다.

(2)

>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 쫓기는 사슴이
>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
>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 넓은 언덕에
> 밤 이슥히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산 밑까지 어두운 숲이 내려올 정도로 험한 산속입니다. 여기서 몰이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은 눈 위에 따뜻한 핏방울을 흘려요. '사슴'이 몰이꾼에게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산속을 달리는 모습,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사슴'은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려가며 도망치는데, 만난 것은 '넓은 언덕'입니다. 거기에 밤 이슥히 횃불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도망가서 숨을 곳도 마땅치 않고, 사냥꾼도 포기하지 않으며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뭇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 표범과 늑대.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입니다. '사슴'과 같은 뭇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포수와 사냥개들은 며칠씩 산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정말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 와중에 나이가 어린 '사슴'은 오늘도 몰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까지 봅니다. '사슴'의 입장에서 '표범'과 '늑대'는 자신보다 훨씬 강한 대상들인데, 몰이꾼은 이렇게 강한 '표범'과 '늑대'까지 제압할 정도로 훨씬 강력해요. 이런 몰이꾼이 집요하게 자신을 쫓고 있으니 '사슴', 그것도 나이가 어린 '사슴'의 입장에선 공포 그 자체의 상황일 것입니다.

>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 그는
> 어두운 골짝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이 '사슴'은 이미 총을 맞은 어미의 자식인가봐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면서, 어린 '사슴'은 생각합니다.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를 말이죠. 3행부터는 어린 '사슴'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 '사슴'(='그')이 '샘'과 '약초'를 떠올리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총을 맞은 어미의 상처를 핥으면서 떠올리는 '샘'과 '약초'는, 자연스럽게 어미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린 '사슴'의 입장에선 그저 어미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그렇게 아슬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서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린 '사슴'이 어미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는 '샘'과 '약초'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어미 '사슴'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미 '사슴'은 (곧) '죽는 이'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결국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이미 죽은 다른 '사슴'들이 곧 죽을 어미 '사슴'을 묻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린 '사슴'에게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은 '사슴'들에게 맡기고 얼른 도망가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죽은 이로 하여금 / 죽는 이를 묻게 하라.'는 성경의 한 구절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이의 말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목이 '성탄제'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죠.) 나아가 여기서 나오는 '쇠북 소리'는 성탄제에 울리는 종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린 '사슴'은 '쇠북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음성까지 들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미 '사슴'은 이미 죽은 이들에게 맡겨 두고 너라도 살아남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 두 뺨에는
> 맑은 이슬이 내리고
>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
> – 오장환, 「성탄제」 –

그렇게 어린 '사슴'은 떠납니다. 여기서 '길이 돌아가는'이라는 구절은 어미 '사슴'이 저승으로 길게 돌아간다는 의미, 혹은 어린 '사슴'이 어미 '사슴'을 두고 길을 돌아서 떠난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 즉 눈물이 흐르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어미 '사슴'의 핏방울이 흐릅니다. 어린 '사슴'을 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미 '사슴'의 슬픔, 그리고 그러한 어미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린 '사슴'의 괴로움 등이 느껴지신다면 충분히 잘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 새벽녘이면 산들이
>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 해 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

화자가 사는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산'들이 새벽녘에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온다고 합니다. '산'들이 정말 날아다니는 건 말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해가 뜨면서 '산'들의 모습이 보이게 된 것을 묘사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당연하게도 '산'들은 종일토록 무언가를 먹지도, 어떤 말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 질 무렵이 되면 다시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속으로 간다고 해요. 이 역시 해가 지면서 '산'들의 모습이 약간의 형상(틀)을 제외하곤 보이지 않게 된 것을 묘사한 것이겠죠?

> 산은 날아도 새둥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 짐승들의 굴속에서도
> 흙 한 줌 돌 한 개 들썽거리지 않는다
>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 봐
>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
>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 기분 좋게 엎대서
>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은 그렇게 날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새둥이', '꽃잎', '짐승들'과 같은 이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구처럼 부동의 자세'로 떠 갈 뿐이에요.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안의 생명체에겐 아무런 불편함도 주지 않는 지구처럼, '산'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엎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사람이 지구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아가듯(움직이는 지구 위에 몸을 싣고 있듯) '새'나 '짐승들'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 대상들을 배려하는 '산'의 모습이 잘 그려시지죠?

>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 언젠가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 높은 꼭대기에 신을 뫼신다

이렇게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즉 밤이 올 것이라는 알고 '사람들'은 달아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얼른 '산'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죠? '산'은 그런 '사람들'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기다려 같이 가기도 합니다. 밤이 되어 '산'이 날아

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화자는 이를 날아가는 '산'이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심지어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들'을 묻어 주기도 하고, 높은 꼭대기에 '사람들'이 믿는 신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산'은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네요.

>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계속해서 '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하기에,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가기도 해요. '산'은 '산기슭'처럼 낮은 부분부터 '험한 봉우리'처럼 높은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화자는 이를 '산'이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을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산'은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어수선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이렇게 나무를 기르는 법,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과 엮어서 최대한 이해해봅시다. 지금까지 제시된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산'을 믿지 못하고 성급하게 도망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내력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 즉 인내력과 믿음이 있어야 필요한 '나무 기르기'에 대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다스립니다.

또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보여 주는 모습의 하나는 어수선하게 사는 꼴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문학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어수선하다'는 '속세에 찌들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산'은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다스린다고 해요. 아무리 속세에 찌들고 욕심이 많아서 '벼랑'을 노리더라도, 그곳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겸손하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사후적인 해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3연, 4연의 내용을 5연에 붙여 읽는 것입니다. '시' 역시 하나의 잘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되기도 합니다. 화자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산' 역시 이렇게 감정이 있는 대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되게 내야만 '고산'도 되고 '명산'도 된다는 것이죠.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산' 역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의 기복도 존재하지만, 제대로 화를 내는 등 감정을 표현해보아야 '고산', '명산'과 같은 성숙한 존재가 되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포용력을 가진 '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결국 화자가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산의 포용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
> - 김광섭, 「산」 -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요. 아마 '산'의 아래쪽에 먼저 꽃이 피는 등 봄의 징조가 오나 봅니다. 화자는 이렇게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사이좋게 지니고 사는 '산'의 포용력을 예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4)

>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 쇄기 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떡갈나무 숲'을 걷고 있는 화자입니다. '떡갈나무'의 잎은 떨어져 동물들의 털이 되기도 하고, 쇄기 집 혹은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화자가 걷고 있는 숲의 '떡갈나무'들은 여러 존재들을 위해 자신의 잎을 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婚禮),
>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 한데,
> 텃새만 남아
> 산(山)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화자가 있는 '떡갈나무 숲'에는 원래 풍뎅이들의 혼례가 그득했습니다. 풍뎅이들이 끊임없이 혼례, 즉 결혼을 할 정도로 풍뎅이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들의 눈부신 날개짓 소리가 들릴 것처럼 그 풍경이 눈에 선하지만, 지금의 '떡갈나무 숲'에는 '텃새'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산 아래 콩밭에 뿌려 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하고 있다고 해요. 쉽지 않은 표현이지만, '텃새'들이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텃새'들이 콩밭의 콩을 쪼아 먹으며 지저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풍뎅이들은 가고 없지만, '떡갈나무 숲'은 '텃새'들과 함께 나름 평화로운 것 같아요.

>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화자는 이번엔 '노루 발자국'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노루'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떠났다고 해요. '풍뎅이'처럼 '노루'들 역시 떠나고 '텃새'만이 '떡갈나무 숲'을 지키고 있는 것이네요.

>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화자는 이러한 '떡갈나무'의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자신을 들이마시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늘과 그 아래 있는 풍경에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겠죠. 화자는 오늘 밤엔 자신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하늘이 자신을 들이마셔 별로 만들어 '떡갈나무 숲'을 마음껏 즐기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의 풍경에 심취해 있는 것이죠.

>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 어느 산(山)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山)짐승의
> 젖꼭지처럼 까맣다.

화자는 이번엔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를 봅니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어느 '산짐승'이 먹을까 하면서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은 것 같다고 해요. 그 열매는 자신의 배고픔을 희생하면서까지 새끼를 위하는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됩니다.

>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 중얼거린다.
>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빰에 대 봐,
>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사실 화자는 외롭고 쓸쓸했나 봐요. '떡갈나무'에게 자신의 내면세계를 토로합니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외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슬픔으로 부은 화자의 발등에 '마지막 손'에 해당하는 잎을 떨굽니다. 사실 가을이 되어 그냥 잎이 떨어지는 것인데, 화자는 이를 자신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화자가 힘든 상황이고, 또 '떡갈나무'에게 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화자가 그리고 있는 '떡갈나무 숲'을 머릿속으로 잘 떠올렸다면 완벽하게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화자는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등나무 줄기가 가닥가닥 꼬여 있는 것을 봅니다. 화자가 봤을 때 이는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현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 그 후부터다

화자의 눈물은 그동안 철없이 주걱주걱 흘렀지만,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냅니다. '구슬 같은 소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과 대비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성숙한 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아가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화자의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슬 같은 소리'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과 슬픔을 섞어서 경험할 정도로 화자는 많이 성숙해졌는데, 이는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송이'를 보고 난 후부터라고 합니다. 화자는 '등꽃송이'를 비롯한 등나무를 통해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겪은 것이었어요.

>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가는 그 속에서
>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등나무의 밑뿌리는 절제 없이 여기저기 뻗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고, 등나무와 등꽃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너'라는 타인들과 함께 꼬여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꼬여가는'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꽃'과 같은 훌륭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화자는 1연에서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 송수권, 「등꽃 아래서」 –

또 구름은 화자의 머리 위 평발, 즉 '등꽃'을 밟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자는 '파란 옥빛 구슬 / 꺼내드는 은은한 소리', 즉 등꽃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요. '파란 옥빛 구슬'로 표현한 등꽃의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은은한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화자의 입장에서 '등꽃'이 왜 아름다운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화자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